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27주년 추모식  
추 모 사

- 일시 : 2017년 5월 8일(월) 오전 11:30
- 장소 :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광 복 회

# 추 모 사

오늘, 우리는 조국광복 당시 중국으로부터 환국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절대 봉대론(奉戴論) 주장과 함께 민주주의 국가건설을 역설하셨던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 선생님의 탄신 127주년을 맞이하여 선생님의 높은 뜻과 화합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좌우대립이 극심했던 해방정국의 혼란기에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내세운 분단극복과 통일정부 수립구상이 민족의 살길을 여는 길임을 알고 계신 선각자이셨습니다.

한평생을 항일 독립운동과 민족교육, 언론운동과 정치활동을 해 오신 선생님께서는

전남 담양의 전통적인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시어 어려서부터 시문(詩文)을 잘 짓는 성리학자적 자질이 풍부하셨으며,

개화된 부친(父親)을 두신 덕분에 영어 등 신학문을 깨우치고, 일본 유학을 통해 전문과 식견을 더욱 넓히셨습니다.

일본에서 귀국하신 뒤 교편을 잡고 계실 즈음에 국내와 중국, 미주의 인사들과 비밀리에 접촉하시며 1919년 3.1독립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신 분들 중의 한 분이셨습니다.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과 언론 활동을 독립운동의 한 방략으로 삼고,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비롯하여 물산장려운동, 농촌계몽운동 등을 전개하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수차례 옥고도 치르셨습니다.

요즘 한반도 사드 문제로 한(韓)·중(中) 양국 간 사이가 몹시 좋지 않을 때, 선생님에 대한 일화(逸話)중에는 양국을 화해시킨 좋은 사례가 있어 많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1931년 5월, 일본의 간계에 의해 촉발된 ‘만보산(萬寶山) 사건’ 으로 인하여 한국인과 중국인들 간에 서로 살육전을 벌이는 등 격렬한 민족감정이 일어났었는데,

선생님께서서는 차분히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사건의 진상을 언론을 통해 널리 알리시는 한편,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국내 거주 중국인들까지도 깊이 위로하셨으며,

그로 인하여 당시 중국의 장개석 총통으로부터 ‘친인선린(親仁善隣)’ 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감사패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민족과 조국을 위하여 일하는 것만큼 위대한 삶도 없다고 호소하신 선생님이시어!

우리 후세들이 선생님의 독립정신과 화합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여 국민화합을 이루고,

나아가 인류평화를 실현해 가는데 첨병이 될 수 있도록 음우하여 주옵소서.

2017. 5. 8

광복회장 박 유 철